

고해역

최근 수정 시각: 2025-09-24 14:33:02

분류: 탄성군(효빈)의 철도역 | 1994년 개업한 철도역 | 효빈 도시철도 1호선 | 빈효선 광역전철 |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

1. 개요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4. 일평균 이용객
5. 승강장
6. 연계 교통
7. 기타

고해역	
1	빈효
곽암해수욕장·창선 방면 능릉 ← 3.1 km	1 호선 (139) 장선·승남해수욕장 방면 도향 5.85 km →
효빈항 방면 영색무 ← 5.2 km	빈효광역 (B21) 고남 방면 영내 10.49 km →

역명 표기	
1 호선	고해역 Gohae Station 高海驛/高海驿/ゴヘヨクヒヨビ ンハンムルリュジグ
빈효선 광역전철	

주소	
효빈광역시 탄성군 고해읍 이와리 81	

관리역	
효빈항관리역	

운영 기관	
1 호선	효빈교통공사
빈효선 광역전철	한국철도공사

개업일	
1 호선	1994년 12월 29일
빈효선 광역전철	2017년 5월 2일

역사 구조

지상 1 층 (빈효선)

지상 1 층 (1 호선)

승강장 구조

2 면 3 선 상대식 승강장 (1 호선)

복선 섬식 승강장 (2 호선)

1. 개요

효빈 도시철도 1호선 139번 및 빈효선광역전철 B21번, 효빈광역시 탄성군 고해읍 이와리 81 소재.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고해역 출구 정보

1	고해읍 사무소
2	고화산
3	월상시장

4. 일평균 이용객

연도	1	빈효	총합	비고
2020년	5,180 명	5,709 명	10,889 명	
2021년	5,280 명	5,767 명	11,047 명	
2022년	7,280 명	6,583 명	13,863 명	

2023년	8,080명	6,650명	14,730명	
2024년	8,280명	6,717명	14,997명	

5. 승강장



6. 연계 교통

구분	정류소명	노선 번호
순방향	고해역	258, 551, 592, 8000, 고해 01, 고해 02
역방향	고해역(건너편)	528, 551-1, 952, 8000R, 고해 01-1, 고해 02-1

7. 기타

7.1. 역명과 관련된 여담: 타카미 치카 성지순례지 '高海'

고해역은 효빈광역시 탄성군 고해읍 이와리 81에 소재하는 역이다. 이 역은 효빈도시철도 1호선과 빈효선 광역전철의 환승역으로 기능하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광역 이용객에게도 중요한 거점이다. 특히 이 역의 정식 한자 표기인 高海(고해)는 일본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주요 캐릭터인 **타카미 치카(高海千歌)**의 성(姓)과 한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 이러한 이름의 문자적 일치성 때문에 고해역은 캐릭터 팬덤 사이에서 **'타카미(高海) 성지순례지'**의 핵심 장소로 자리 잡았다.
- 팬들은 이 역에서 4호선 천가역(千歌驛)과 연계하여 '高海千歌(타카미 치카)' 풀네임 성지순례 코스를 완성하며, 이는 효빈시의 교통망이 문화 연대의 매개체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 이러한 문화적 유입에 힘입어 2023년 기준 일평균 총 이용객이 14,730 명, 2024년 기준 14,997 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7.2. 2023년 윤재훈의 '굴 테러' 굴욕 사건

2023년, 고립주의 성향을 가진 윤재훈이 **고해역(高海)과 천가역(千歌)**에서 러브라이브! 선샤인!! 팬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굴 굿즈에 맞아 굴욕적으로 패배한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 경위: 윤재훈은 이 역의 환승 구역(1호선과 빈효선 광역전철 연결부) 등에서 팬들의 성지순례 활동을 **"도시 인프라 오염"**이라고 규정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지역의 공식 역명 한자인 '高海'가 일본 캐릭터와 연결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효빈시의 상생 가치를 훼손하려 했다.
- '굴 테러'와 윤재훈의 굴욕: 이에 분노한 팬들은 캐릭터의 상징물인 굴 모형 굿즈 등을 윤재훈에게 던지며 반격했고, 윤재훈은 지역 특산물인 굴의 이미지와 대중문화의 연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현장에서 쫓겨났다.
- 후폭풍: 이 사건은 효빈대 에브리타임에 **'굴 맞은 윤재훈 굴욕 사건'**으로 알려져 A 씨와 윤재훈의 고립주의 사상이 지역 경제와 문화적 연대의 힘 앞에서 무력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 타카미 치카의 성우가 일본 라디오를 통해 이 사건에 경악을 표하며 **'혐오자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건은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확대되었다.
- 역사적 의미: 이 사건은 고해역이 단순한 교통 시설(1호선은 1994년 개업, 빈효선은 2017년 개업)을 넘어 문화적 포용력을 시험하는 장이었으며, 최종적으로 '高海'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높은 가치가 혐오를 물리쳤음을 보여주었다.